관음종 노력 빛났다…조세이 한일 합의 '견인'

2017년부터 日현지서 위령재
日 새기는회 주도로 추모사업
추모비 세우고 유해 발굴 진행
관음종, 잠수조사 꾸준히 지원
한일 종교 · 시민단체 원력 귀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음종은 2017년부터 매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하며 한일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열린 위령재 모습.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아픈 역사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중이어서 보도 통제가 심해 사건은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의 배상과 사과는 없고, 183명의 유해 발굴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조세이탄광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큰 틀에서 조세이탄광 유해 발굴 및 송환의 첫발을 내딛게 된 데에는 한국불교계와 일본 시민단체의 원력과 실천이 뒷받침됐다. 먼저 조세이탄광 사고를 세상에 알린 것은 깨어 있는 일본 시민들이 만든 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 이하 새기는회)'였다.

새기는회는 1991년부터 강제 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국 이름을 찾아 118명의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한국 유족들은 피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유족회와 일본 새기는회의 활동으로 2013년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위령비가 건립됐다.

위령비 건립 후 새기는회는 2014년부터 단체 사업 목표를 추모에서 유해 발굴 및 본국 송환으로 전환했다. 이때부터 한국불교계가 이들과 함께했다.

2015년 제18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 히로시마 대회에서 당시 서장은 히로시마 총영사가 한국불교계에 조세이탄광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요청했고,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듬해 1월 30일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위령재를 일본 우베에서 봉행했다. 이후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2015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 무연고 영골에 대한 환국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고, 2017년부터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또한 관음종은 매년 100만엔을 후원기금으로 전달하는 등 유해 발굴을 지원해 왔다.

관음종의 이 같은 노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여론 환기에 큰 도움이 됐고, 일본 현지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2023년 일본 중의원 회의에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유해 발굴 관련 질의들이 이뤄졌으며 2024년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사진전과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새기는회의 노력과 관음종의 지원으로 지난해 8월에는 잠수조사 중 본갱도 안에서 희생자 4명의 유해가 발견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는 매우 뜻깊다. 관음종은 1월 14일 발표한 환영 메시지에서 "양국 정상이 일제 치하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유골에 관심을 갖고 발굴된 유해에 대하여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첫 쾌거를 만들어 냈다"며 "새기는회가 결성된 지 35년, 관음종이 유골 봉환사업을 선언한 지 11년만의 일"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산적한 문제가 이번을 계기로 하나씩 풀려나가길 기대한다"며 "오로지 한일 양국의 발전적 미래와 인도적 차원의 해결을 우선 생각한다면 풀지 못할 과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기는회 측도 1월 13일 발표한 자료에서 "수습·보관된 유골이 유가족에게 돌아간다는 당연한 일이 한일 양국 정부의 협력을 통해 실현된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양국 정부가 협력하는 일이 시작되려 한다"고 환영했다.

도선사, 금강경 108 순례로 신행 강화

1월 11일 '어울림한마당' 개최
문화포교 · 사중 운영 내실화도



서울 도선사(주지 도심 스님)가 〈우리말 금강경〉 독송과 금강경 108 성지순례 등을 통해 신행 활동 강화에 나선다. 도선사는 1월 11일 서울 도봉구민회관 3층 소강당에서 신년하례회 '2026년 삼각산 도선사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올 한 해 핵심 과제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사진〉

도선사는 올해 △〈우리말 금강경〉 독송 △산신기도 △금강경 108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불자들의 신행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특히 도선사불교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신행단체 승만회를 결성해 도선사 신행 활동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확대, 불교문화교육관 건립 추진, 어린이·청소년 불교문화행사 개최, 불교대학 운영으로 문화포교 역량도 강화한다. 사중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종무조직 개편과 혜명복지법인 사무국 이전, 청혜도원 주차장 운영 등 행정·시설 전반 개편도 추진한다.

주지 도심 스님은 신년사에서 "신도들을 화합으로 이끌고 도량을 참회와 수행의 장으로 지켜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원력과 보살행은 반드시 크나큰 공덕으로 회향될 것"이라며 "오늘 행사가 서로 원력을 증장시키고, 도선사의 이름으로 하나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도심 스님은 신도회 임원진도 새롭게 구성했다. 신도회장에는 김학규 회장이 연임됐다.

김내영 기자

파라미타 '관계 중심 사회정서교육' 연수

1월 10~11일, 한국문화연수원
혜주 스님 개발 프로그램 선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무스님)가 1월 10~11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교육,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정서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5학년도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이번 연수에는 전국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선명상의 핵심 요소인 집중, 자기이해, 자기조절, 자비, 상호연결성을 교사들이 직접 체득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돕고자 마련됐다. 또한 교실 내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사회정서적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열렸다.

특히 이번 연수는 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인 혜주 스님이 개발한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정서교육'을 교사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강사진으로는 개발자 혜주 스님과 동국대 아동인성교육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자 WISE 캠퍼스 초빙교수들이 함께해 연수의 전문성과 깊이를 더했다.

연수는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정서교육의 이해 △초등학생을 위한 마음의 숲 탐험대 소개 및 체험 △마음 항해일지 소개 및 체험 △중학교 사회정서교육 과정 소개 및 체험 △사회정서교육의 적용 및 계획 등 다채롭고 실제적인 강의로 구성됐다. 참석 교원들은 이론 습득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험 활동과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5년만 100억 후원 '나누며하나되기'…새해엔 '남북교류'

새해 신임 이사장 보광 스님 취임
"삼보정재·공익재산 이웃에 회향"



천태종 산하 NGO단체로 환경과 문화교류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보광 스님)가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소외이웃에 나눈 후원 물품과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불자들의 십시일반과 기업을 포함한 각계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

보광 스님〈사진〉을 신임 이사장으로 맞이한 나누며하나되기는 1월 13일 서울 종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속에서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이를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 주목을 끌었다.

천태종은 2002~2005년 개성에 위치한 고려 시대 왕실사찰 영통사의 복원불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해 북과의 인연이 깊다. 당시 개성 복원불사 현장에 수차례 방문한 바 있는 이사장 보광 스님은 "지금은 교류 활성화 공존 프로젝트나 거창한 구호가 아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무엇을 추진하기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를 펼친다면 종단도 함께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누며하나되기는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영통사 복원기념 및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 다례재 봉행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봉행 △성지순례 △영통사 보수 △남북 청소년문화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누며하나되기는 1월 중순, 소외이웃에 나눈 후원물품과 금액이 100억원 상당을 넘어선다. 2022년 2월부터 나눔을 시작한 지 5년만의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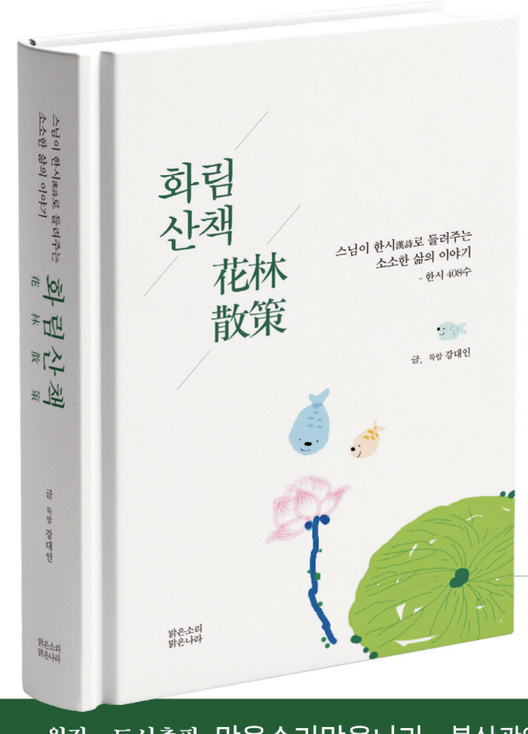
보광 스님은 "지난해 134개 기업에서 28억3618만9690원 가량의 물품을 후원받았고 이와 함께 90건, 1360만원의 후원금이 답지했다"면서 "100억원 나눔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과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많은 응원을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화림산책 / 花林散策
스님이 한시漢詩로 들려주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 - 한시 408수


묵암默庵 지선志禪 스님은 근세의 선장禪丈이신 경봉정석鏡峰靖錫, 1892–1982선사의 법제자인 벽안碧眼,1901-1988화상의 문인이다. 종범스님이 경봉 - 벽안 - 묵암으로 법맥이 이어졌다고 대중에게 선언한 바 있다. 묵암스님은 평생을 수선修禪에 거처하고 때로 포교布教에 힘을 기울인 선자禪者이다. 그런데 방선放禪의 여가에 드문드문 한시漢詩를 지었다고 한다. 그렇게 지은 한시가 사백여 편이 된다. 스님은 한시집의 내용을 스스로 '소소한 삶의 이야기'라 평했다. '가랑비는 청산을 지나고'에 소박素朴이 피어나고,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함'에 해행보살解行菩薩의 기운이 보이며, '서툰 듯 읊는 벗들과의 만남'에는 세속의 정情 속에 청정각명淸淨覺明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 노치허 선생의 해설 중에서
글.묵암 강대인
펴낸곳.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610쪽 | 27,000원
월간 ·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좌수영로125번길 14-3 올리브센터 2층
Tel. 051-255-0263 / Fax. 051-255-0953 / 전자우편. puremind-ms@hanmail.net